

설 명절 '불편 제로' 대책반 가동

전남도, 9~12일 물가·교통 등 11개 분야별 대책 운영 성수품 가격 조사·쓰레기 투기 단속... 복지시설 위문도

전남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물가안정·교통·보건진료·소방·구조구급·감염병·쓰레기 대책 등 11개 대책반을 꾸리고 분야별 추진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물가안정대책반의 경우 지난 1월 중순부터 전남도 실무 국장을 물가관리관으로 지정하고 22개 시·군 부단체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대책상황실을 구성한 뒤 전통시장, 소매점포 등을 찾아 성수품 가격 동향 조사, 농산물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살피며 안정적 지역 물가 동향을 관리중이다.

재난·재해대책반은 하루 4명씩 24시간 교대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설 연휴 간 산발방

지대책 등도 마련해 추진기로 했다.

연휴 기간이 짧고 장거리 이동 및 이용객이 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라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교통대책반도 운영한다.

교통대책반은 수도권-전남 시외버스 26개 노선을 증차(110대)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제를 지정해 안전 운영을 지도한다. 시·군 별로 성묘길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시·군별로 1곳 이상 정비업체를 비상 근무토록 하는 한편, 완도 권역 2개 항로(당북-서성, 완도-정산)에 예비선을 투입하고 목포·여수·완도 3개 권역에 대해서는 기존 운항 여객선을 증편해 귀객객 수요를 분산키로 했다.

보건·진료 및 식음료 대책반도 22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삼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544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지정일자자를 정해 진료에 나서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최근 호흡기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해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8일까지 독감, 코로나 19 집중 예방접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연휴 기간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집중 수거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나서는데 한편,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한 상황실도 운영한다.

전남도는 아울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51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 활동을 벌이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중점 감찰도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 관광두레 미식투어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담양군 창평면 기순도 명인집을 방문, '전남 관광두레 사업 미식투어'에 참여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총선 공약 35개' 발굴 정당에 건의

5·18 헌법전문 수록·경제자유구역 확대·국제학교 신설 등

광주시가 모빌리티, 인공지능, 반도체를 융합한 'X-MAS 실증도시' 조성 등 22대 총선 공약을 최종적으로 발굴 확정하고, 각 정당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회의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광주시당 대표를 초청해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미래산업 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 정신 확산 ▲문화 일상 도시 ▲시민 안심 도

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35개 핵심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산업 도시 분야에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 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 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 밸리 조성 등을 담았다.

메가시티 광주 실현을 위해서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

업 유지를 통한 기회 발전 특구 추진, 서남권 M·E·T·A (Mobility·Energy·Tour·Aging) 산업 신경제 벨트 구축,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달빛 철도 조기 건설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5·18헌법전문 수록,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대,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등으로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돌봄 민주주의로 승화시키겠다고 건의했다.

문화 일상 도시는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전문예술극장 건립·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정 설립·경전선 폐선 부지 활용 관광철도 구축, 시민안심 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영산강 100리길 조성·교통비 지원 등의 과제 해결을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신정훈 "나주-화순-광주 초광역 지방시대 열 것"

나주화순 예비후보

신정훈 민주당 나주 화순 선거구 예비후보는 7일 오후 4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선다.

신 예비후보는 나주·화순의 성장 동력으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나주·화순·광주 3축을 잇다'라는 비전을 내걸고 '영산강 경제동맹'으로 초광역 지방 정부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신 후보의 공약인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는 나주·광주를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화순·광주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한국



형 보스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한편, 나주·화순은 '영산강 역사문화권 복원과 농생명 푸드테크 메카'로 키워나가는 구상이다.

신 후보는 택시 대중교통 법 제정 및 농촌지역 대중교통 전면개편, 그린벨트 및 상수원 보호구역정비 등의 공약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으로 지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서갑원, 5호 공약 '순천대 의대·부속병원 신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

서갑원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순천 미래 발전 전략'으로 '순천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추진'을 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도 지역 의대 설립 계획은 제시조차 않은데다, 목포·순천대가 이미 공동으로 의대 설립을 합의한 상황에서 의지만 앞세워 내놓은 공약이라는 점에서 자칫 '뒤통수' 식 공약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 예비후보는 "순천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순천 시민 뿐 아니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여태껏 실마리조차 풀지 못했으며 권역심혈관센터 유치도 못했다"면서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 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공공의대를 국립대인 순천대에 설치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내 수석으로 국회를 이끌었던 경험, 예결위 간사로 정부 예산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3선 중진위원이 되면 국회와 중앙 정부를 오가며 순천대 의대 신설을 설득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의대 신설은 의료서비스 확충뿐만 아니라 순천에 기업 및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청년, 기업·공공기관서 일해 볼 기회

'일경험드림플러스' 430명 20일까지 모집...5개월간 실무 경험

광주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으로 일 경험에 참여할 제15기 드림청년 430명을 모집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지역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63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에 주민등록이 있는 19~39세(1984년 3월 2일생~2005년 3월 1일생)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67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또 공통교육과 유형별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등

청년 연결망(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드림터에 대한 정보와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일부터 20일 오후 9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면접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19~21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남의 날'에 참여해 드림터 상담과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으며, 19~20일 현장에서도 신청과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27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광주청년드림'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